



조경수목산책 31

- 무궁화 -



임 경 빈
농학박사

안동 예안향교의 애기무궁화
경북 안동에 있는 예안향교를 찾은 날이 1992년 9월 어느날이었다. 향교 주변에는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많았고 높다랗게 솟아오른 은행나무 한그루도 있었다. 문제는 향교

의 뜰에서 신기한 무궁화의 새로운 품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무의 줄기는 외대로 자라고 있었으나 높지는 않고 지하고(枝下高) 1·2m쯤으로 추정되었으며 줄기 끝쪽에 모여난 결가지들이 서로 기이하게 꼬여 있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라기 보다는 사람이 기교를 부려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었다.

이 무궁화 나무의 특색은 꽃의 모양에 있었다. 꽃이 소형이고 꽃의 직경이 3~5cm 정도였고 꽃잎의 모양이 약간 길게

빼뚜러져 있었고 바퀴가 돌듯이 꽃잎이 회전상(回轉狀)을 이루고 있었다. 꽃의 크기는 나무의 나이와 입지조건에 의한 스트레스에 따라 작아질 수도 있고 거름과 물을 충분히 준다면가 꺾꽂이 번식으로 회춘현상(回春現象)을 자극시켜주면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궁화는 소형화(小型花)이다. 꽃잎은 흰색이었으나 중심부의 붉은색 소위 단심이 유난히도 아름다웠다. 꽃조각과 꽃조각 사이가 일반 무궁화의 그것과는 달리 서로 떨



▲무궁화와 석등, 대원사 경내. 1999. 7. 27

어져 있는 것도 다른 품종의 무궁화에서 보지 못한 특징이었다. 이 무궁화는 확실히 다른 일반종과 크게 구별이 될 수 있는 형태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때 동행했던 전 이화여자대학교 식물학교수 이영로박사와 함께 신품종으로 명명하여 식물분류학회지 제22권 제1호(1992년)에 보고하였다.

이 무궁화를 우리말 이름으로는 『애기무궁화』로 했으며 학명(學名)은 *Hibiscus syriacus* Linne var. *micranthus* Y. Lee & K. B. Yim var. *nov.*로 주어졌다. 나는 이 애기무궁화의 학명에 명명자의 한사람으로서 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 애기무궁화의 기본표본은 이화여자대학교 식물표본실에 보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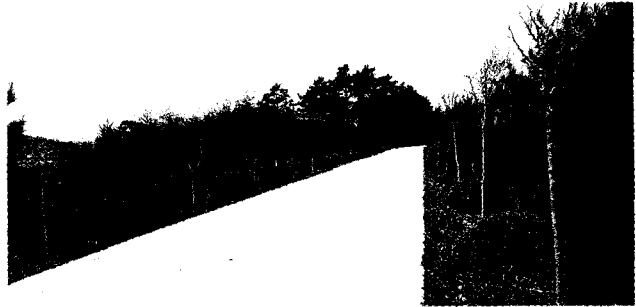
이 애기무궁화는 접목 등 무성번식으로 상당수 증식이 되어 있다. 여기에 안동 예안향교에서 직접 촬영한 꽃의 사진을 보인다. 어떻게해서 이곳에 이러한 품종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신기한 이 품종이 그간 잘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은 고마운 일이다. 무궁화는 인공교배(人工交配)로 잡종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무궁화와 애기무궁화 사이에 색다른 튀기 무궁화가 생겨날 것이다.

그뒤 나는 꽃의 모양을 관찰해 보았는데 꽃에는 좌권화(左卷花)도 있고 우권화(右卷花)도 있었고 또 그 중간형도 있었다. 애기무궁화의 특색의 하

나는 꽃봉우리에 암술머리가 길게 밖으로 튀어 나와 있고 암술머리는 다섯개로 갈라져 있다. 이러한 현상도 다른 무궁화종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현상으로 안다. 무궁화는 원래 자가수정(自家授精)이 잘 안되는 식물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 자가불화합성(自家不和合性)이 있다고 말한다. 이 점에 관해서 개체변이가 잇기는 하나 애기무궁화는 처음부터 타가수정(他家授精)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애기무궁화는 애기처럼 귀여움을 지니고 있어 우리의 유별난 사랑을 받게 된다.

 **대원사의 무궁화**
대원사의 무궁화가 별다른 뜻을 가진 것은 아니다. 99



▲교목형 무궁화가로수. 임목육종연구소 1999.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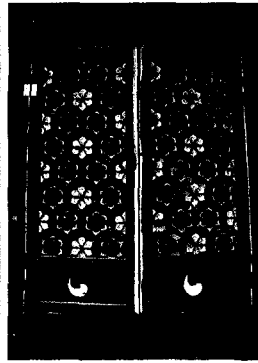
◀가장 큰 무궁화나무. 남원 신동면 대삼리 1994. 4

▶무궁화의 변종(수줍어) 기세일 무궁화. 1996. 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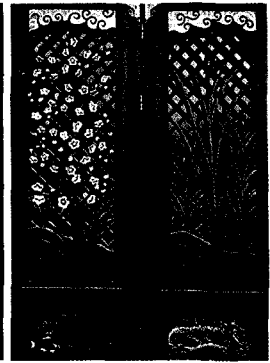




▲두번째로 가장 큰 무궁화나무 백령도 중화리교회 1998. 5. 15



▲실상사 약사전의 꽃문살 1993. 7. 26



▲대원사 대웅전의 아름다운 꽃문, 매화와 난초 1999. 7. 27



▲단간성(單幹性) 무궁화 가로수. 임목육종연구부 1999. 8. 5

년 7월 27일 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원사를 찾았다. 대원사는 진주에서 대원사행 버스를 타면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버스 요금은 7천원 정도였으니 가까운 거리라 할 수는 없다.

대원사계곡을 따라 오르면 지리산 최상봉인 천왕봉에 오를 수 있다. 전에는 이 계곡을 대원사계곡이라 하더니 지금은 유평계곡으로 말하고 있었다.

대원사는 아담한 조계종의 절이고 여승 둘만의 사찰이며, 신라 제24대 진흥왕 9년(548년)에 창건되었고 처음에는 평원사(平原寺)라 했으나 1890년 고종 27년에 대원사로 명칭을 고쳤다.

나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대원사 경내에서 비에 젖은 무궁화나무의 꽃을 바라볼 수 있었다. 옆에는 석등이 있었고 또 옆에는 배롱나무가 늙은채로 서 있었다.

대웅전의 처마가 배경을 이루고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빗줄기 속에 있었다. 지나가는 젊은 여승이 나무이야기를 나누어주는 데에는 불교의 내음이 듬뿍 담겨져 있었다.

나는 '이러한 경치에 무궁화가 어울리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석등, 배롱나무의 껍질, 무궁화의 고개숙인 꽃, 도(道)를 찾아가는 동반자들로서 그렇게도 어울릴 수가 없었다. 무궁화는 이러한 곳에 심어져야 하는구나 하고 상념에 잠겨 보았다.

경치를 만드는데는 한 그루의 무궁화로서도 족하다. 채근담에 득취부재다(得趣不在多)라는 구절이 있다. 좁고 작은 공간 적은 숫자에서도 구름과 연기와 노을과 광활한 아름다움의 공간을 마음속 깊이 만들어 내어 흡족할 수가 있다.

대원사의 무궁화는 한 그루로서 충분하였고 꽃이 넉넉한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비에 맞은 무궁화꽃이 한결 마음에 들었다. 무궁화 한 그루의 대원사가 좋았다. 여승은 대웅전 꽃문의 매난국죽 사군자도 좋지 않으나면서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모두가 서로 어울리고 좋았다.

무궁화의 전파(傳播)

일본사람들은 무궁화를 『무꾸개』로 말한다. 무꾸개의 표음(表音)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문제는 주은하다가 보다 흥미를 돋구어 준다. 권위있는 일본 문헌에 의하면 목근(木槿)을 그들은 『목깁』으로 발음하는데 『목깁』이 변해서 『무꾸개』로 되었을 것이라 한다. 있을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곳 필자는 무궁화(無窮花)를 일본 발음으로 그대로 쉽게 『무큐까』로 되고 무큐까가 무꾸개로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펴려한 일이 있다.

무궁화는 아주 옛적 책에서도 동방의 나라 즉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근역(槿域)으로 말하였다니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자생종(自生種)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의를 달고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으로 나는 무궁화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로 자연상태에서 살아지고 없어졌는가하는 것은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게 된다.

문헌에 보면 무궁화는 중국 산이고 일설에는 알페니아산의 것이 중국으로 들어왔다고도 한다. 무궁화의 학명에 『시리아』라는 말이 나오지만 시리아에는 무궁화의 자생품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궁화의 학명에 시리아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교목형으로 키운 무궁화, 임목육종연구소 1996. 8

하지만 학명이 일단 결정되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룰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무궁화가 우리나라로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으나 일본에는 원래 무궁화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1993년 7월 10일(토)자의 조선일보의 다음과 같은 기사는 우리에게 흥미를 붙여 넣어 준다. 다음과 같다.

『우리의 꽃 무궁화가 일본 건국 초기인 나라(奈良)시대(710~784) 일본 귀족들의 「고향정취용」 관상수로 심어졌다는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의 건국 초기 귀족들이 한반도에서 건

너온 사람들이었다는 역사적 증거의 하나가 더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천리대학교(天理大學校) 부속 참고관의 가네하라(金原正明) 연구원(38)의 꽃가루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당시 무궁화는 일본에서 자생되지 않았으며 일본에 본격적으로 도래된 시기에 대하여서도 그동안 불명이였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번의 발견으로 나라시대에 이미 한반도의 무궁화가 묘목으로 일본에 수입되어 귀족들의 관상수로 심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나라시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귀족유적지 발굴 조사도중 나라시대의 흙으로부터 무궁화의 꽃가루 7개를 검출해내는데 성공을 하여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음미해본다면 이미 8세기경에 일본으로 건너가 귀족사회를 구성한 한국사람들이 고향의 꽃 무궁화를 가져다 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젖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 일본에서는 즐겨 무궁화를 심었으리라는 것이 믿어진다. 일본에서는 무궁화 어린잎을 차(茶)의 대용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무궁화가 유럽에 건너간 것은 1596년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샤론의 장미』(Rose of Sharon)이라해서 심고 있다.

조경수